



오창국 목사
박문교회

새벽 밥에서 장수를 따는 손이 멈추지 않는다. 한 손으로 밥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술기를 놓는다. 수확한 상자를 옮기고, 흙 묻은 농산물을 씻고 포장에 줄여준다. 밭일이 끝난 집으로 돌아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와 노인을 돌본다. 그런데 하루의 노동을 모두 마친 이 사람에게 '농업인이십니까?'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농사를 함께 지어도 농업경영의 이름은 남편에게 있고, 농지와 자신의 명의로도 남편에게 있으며, 마을의 중요한 결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쉽게 들

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농업을 하고 있지만 농업의 주체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 농촌의 여성농민은 오랫동안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왔다. 파종과 재배, 수확과 선별, 판매와 가공에 여성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드물지만 농업경영의 결정권과 토지의 자신의 소유, 농협과 마을의 의사결정에서는 그민족의 권한을 갖지 못했다. 농사를 함께 지어도 여성의 노동이 '남편을 돕는 일'로 불리는 순간 농업의 주체와 보호자의 경계가 생겨났다.

농업의 절반을 일구는 사람에게 권리를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된 것은 중요한 변화였지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현실의 권력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공동경영주가 되어도 농지와 자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농업경영의 결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다면 제도는 절반의 변화에 머문다. 여성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시혜가 아니다. 농업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요구다.

유엔총회가 2019년 채택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은 농민을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바라

보지 않는다. 토지와 물, 종자와 생산수단에 접근할 권리, 노동과 건강,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농민의 권리로 다룬다. 특히 농촌 여성이 토지와 생산수단, 금융과 사회보장 등에 평등하게 접근하지 못해 온 현실도 지적한다.

이 관점에서 한국 여성농민의 현실도 새롭게 보인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여성 지원정책'이 아니라 농민으로서의 권리와 여성으로

서의 평등한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농업정책이다.

첫째는 결정할 권리다. 마을총회에서 여성의 발언이 기법적 취급되고 농협의 의사결정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다면 여성농민을 농촌의 주체로 부르기 어렵다. 여성이 장 확대와 성평등한 마을구약, 농협의 여성 참여 확대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농촌의 미래를 결정하는가의 문제다.

둘째는 경제적 권리다. 농지를 구하지 못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농민이 있고, 농사민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다른 일을 선택했다가 겸업을 이유

로 자원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겸업은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생존전략일 수 있다. 여성농민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득을 만들고 자산을 형성하며 농지를 확보할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노동과 건강의 권리다. 농산물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일, 농번기 밭을 차리고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도 농촌을 유지하는 노동이다. 오랫동안 여성의 일이라는 이유로 값없이 취급해 온 노동의 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동시에 반복적인 농작업과 장시간 노동으로 소모되는 여성농민의 몸을 보호하는 예방적 건강정책도 필요하다.

넷째는 미래를 만드는 권리다. 토종씨앗을 지키고 농작 사육을 줄이며 생태적인 농법을 실천하는 여성농민의 활동은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는다. 식량의 미래와 생물다양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공익적 활동이다. 농산물의 가격뿐 아니라 땅과 종자와 생태계를 지키는 가치까지 농업정책이 인정해야 한다.

농업의 절반을 일구는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농업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 사람, 그것이 여성농민의 자리여야 한다.

외무부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나그네의 주거권

레 25:29-30 "29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자 만 일 년 안에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가인 안에 무르익어 30 일 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신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화년에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 안의 집'의 경우, 사고 판 지 1년 안에 판 자가 무르지 않으면, 신 자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된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나그네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나그네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사더라도 도래하는 다음 화년까지 한시적으로 살 수 있었고, 또 화년 전에 언제든지 판 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판 자 자신이 토지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토지를 돌려 주어야 했기 때문에, 자영농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농업 종군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신 24:14-15 "14 공궁하고 빈한한 종군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자는 자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 그 종사를 담일에 주고 한 주까지 머무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종사를 간절히 바랍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신령이 본문에서 '종군'인 '제' (제르)은, 종사를 담일에 받지 못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그네가 아니라 믿는 나그네이다. 따라서 이 신령이 본문을 통해서도, 성경이 특별한 보호를 당하는 나그네는 바깥이나 들에 같은 이방인을 송배하는 모든 나그네가 아니라, 모압 여인 토티 사마리아 나오마에게 한 말처럼 "아미나의 복성이 나의 복성이 되고 아미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토 1:16)와 같은 신앙고백으로, 더 이상 이방인을 송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신앙적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믿는 나그네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방인을 믿는 이방인과 결혼이 엄격히 금지된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이방인을 송배하는 나그네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 이스라엘 복성을 터득시킬 수 있으므로, 이방인을 송배하는 나그네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금지되고, 오직 무의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만 허가될 뿐이다.

그런데 이 신 24:14-15 본문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 '우거하는 자'라고만 하지 않고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자'라고 한 이 표현에서, 나그네 품꾼은 보통 성문 안에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외지에서 처음 온 나그네 가족은 성이 그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서 알려지므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쉬운 편이어서 품꾼 일자리를 구하려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나그네 가족은 자연스럽게 성 안에서 자신이 거주할 집을 구하려 했을 것이다.

나그네들은 보통 곤궁하고 빈한한 농업 품꾼으로 시작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무유하게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무유한 상태로 정착할 수도 있다(레 25:47, "단일 너와 함께 있는 기류인이나 동거인은 무유하게 되고"). 그런데 나그네들 가운데 무유한 사람들도 역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자영농이 될 수는 없고, 그 대신 자기 재산을 팔았으므로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데, 과일 가게나 대장간을 차리거나도 좋은 곳 역시 성 안이다. 성 밖은 사람들이 적게 살고 또 적게 오가는 반면, 성 안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많이 오가므로 과일 가게나 대장간을 차리기에 좋은 곳은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나그네들이 성 안에 차린 과일 가게나 대장간은 그 나그네들의 집을 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성 안의 집마저도 토지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무르익고 화년 회복법이 적용되어, 도래하는 다음 화년까지 집을 살 수 없고, 또 화년 전에 언제든지 무르익게 요구받을 때 돌려 주어야 한다면, 나그네들의 정착과 주거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 안의 집은 무를 수 있는 유효기간을 오직 1년으로 제한하고,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화년이 오더라도 판 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영원히 신 자의 소유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 안의 집을 사고 판 지 1년 안에, 만약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하라고 당한 것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스라엘 복성의 성을 공동체는 그 나그네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분별할 것이다. 따라서 그 1년 안에, 그 나그네에게 성 안의 집을 팔 이스라엘 사람이 나 그 친척이 그 집을 무를 것이다. 그럼 그 나그네는 그 성읍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으므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성 안의 집'은 사고 판 지 1년 안에 판 자가 무르지 않으면, 신 자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하게 한 것은 나그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외무부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녀

경제가 침체되지 않았다. 우리 마을에 침체된 '임대'라고 써 붙여진 현수막이 줄어들지 않는다. 드러나는 지프나 뉴스, 유튜브에서는 현상을 분석하고 인연이라고는 하는데 대안이 없다고 한다. 이런 영상을 몇 개 보고 나면 몸 나라가 망할 것만 같다. 바른 분석도 있지만 현 정부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도 보인다. 경제의 생태계가 변한 것은 사실이다. 스마트폰으로 채어나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나를 보면 온라인의 대세는 틀림없이 보인다. 식당이나 가락도 서빙을 로봇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해 보인다. 주문하는 '키오스크'는 거의 대장화 되었다. 변화하는 미래를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할까? 다들 인연이라고 하는데 잘되는 식당은 언제 가봐도 여전히 줄이 길다.

덜지 않은 현실에서 살아내려

만 세 가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연은 이유는 백 가지도 찾을 수 있다. 그 이유야 타당하겠지만 백 가치를 찾았다 한들 결과는 인연이다. 인연은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몇 번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멈추지 않는 비가 없듯이 방법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다만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서 될 때까지 시도해보는 긍정적

"임대와 창업 사이?"

인 마음으로 도전하는 태도가 결국은 성공을 불러온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 아니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생겨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 계속 방송을 보고 직접 탐방을 가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책을 사서 읽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보인다. 무엇이 기

회인지 보인다. 공부하지 않으면 기회를 불러온다. 나중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몰라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지못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변화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보인다. 성공이 거기에는 있다. 나는 9년여를 양봉업의 선교사 이 아이를 해설하다보니 어느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하다 보면 보인다. 생각만으로는 안된다. 실제 부딪쳐봐야 한다. 한두 번 해보고 인연이라고 멈추지

마라. 반복이 능력이다. 세 번째는 도전해야 한다. 생각만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 공부를 살린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다.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인생은 모험이다. 모험하고 도전하면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계속 도전하다 보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 도

전과 성공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생긴다. 새로운 일 일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결국 극복하게 될 것을 체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미래의 지도자는 수없이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다. 어떤 시대가 와도 또 도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자료에 크게 휘둘리지 말라. 참고는 하되 내가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실패해도 대도가 성공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 '혁신'은 '형식'이 된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외쳐보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최용남

·한국청소녀지역연구소 대표
·예정동향 전반기 전도사
·형평한 세상 선행한 미래 12 저자

외무부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창대교회 목사: '함께하는 길로' 주무회 (전교회 이사) (전임목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236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607 (월곡동) 대표전화: 062-951-5990 FAX: 062-952-6882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벤엘교회 목사: '우리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리용준 목사 61610 광주광역시 남구 군북로 170번길 8 (금산동) 대표전화: 062-710-04 FAX: 062-710-04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새순교회 목사: '신령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1029 광주광역시 남구 모듬마을 34 (월곡동 46-25) 대표전화: 062-952-9595 FAX: 062-952-9595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소망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1024 광주광역시 남구 산촌로 181 (월곡동 209-165) 전화: 062-952-1004 FAX: 062-952-1005	대한예수교장로회 월광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2025 광주광역시 서구 월곡로 31번길 7 (월곡동 47) 대표전화: 062-952-0400 FAX: 062-952-9587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목사: 'THE 미션'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1073 광주광역시 서구 월곡로 100번길 100-8 대표전화: 062-952-1191 FAX: 062-952-4821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남교회 목사: '함께하는 길로' 주무회 (전교회 이사) (전임목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23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76-112 대표전화: 062-951-5990 FAX: 062-952-6882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양림교회 목사: '우리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1662 광주광역시 남구 북사로 70번길 10 대표전화: 062-710-04 FAX: 062-710-04	대한예수교장로회 거성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환로 11번길 24 대표전화: 062-952-9595 FAX: 062-952-9595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창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2297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환로 11번길 24 대표전화: 062-952-9595 FAX: 062-952-9595	기독교한국침례회 엘림침례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광주광역시 서구 월곡로 10-15 (월곡동 47-15) 전화: 062-952-0400 FAX: 062-952-9587	대한예수교장로회 임면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7513 전남 곡성군 임면읍 임면로 100번길 100-8 대표전화: 062-952-1191 FAX: 062-952-4821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동명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1434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20번길 31 대표전화: 062-922-1757 FAX: 062-922-429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성광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1691 광주광역시 남구 불산로 17번길 17 대표전화: 062-952-9595 FAX: 062-952-9595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광명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1652 광주광역시 남구 불산로 43 대표전화: 062-952-9595 FAX: 062-952-9595	대한예수교장로회 봉황임마누엘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남구 봉황동 25번길 25 (봉황동 25) 전화: 010-6622-1035 (현충로 쪽)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섬김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2011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로 14번길 14 (서창동) 대표전화: 062-952-1191 FAX: 062-952-482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무등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동행' (전교회 이사)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주일오전 1부 7:00 2부 8:00 3부 11: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7:00 담임: 함성철 목사 623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환로 10번길 22 대표전화: 062-952-1191 FAX: 062-952-4821